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모방도 잘만 하면 발명이다

산업분야에서 남의 권리, 즉 특허를 모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남의 권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발명을 하는 것은 장려하고 있다. 실용신안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기술이라도 이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면 실용신안 등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특허를 대발명이라고 하고, 실용신안을 소발명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 소발명으로 성공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실용신안제도가 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을 실로 크다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도 비슷하다.

일본 「무카이社」의 C씨는 「먹이를 먹으러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바퀴벌레를」를 만들어 6억엔 어치나 팔았다. 또 같은 일본인 「오오노」씨는 어

린시절에 「파리가 달라붙으면 죽는 끈끈이 종이」를 보고 후일 「바퀴벌레가 달라붙으면 죽는 끈끈이 종이」를 만들어 7천만엔의 거액을 벌었다.

이 두 발명은 남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발명을 함으로써 성공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모방은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그러나 원발명자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폐」의 범위는 특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명인이 되려면 우선 특허법(工業所有權制度)에 관한 책은 한권쯤 필독해 두는 것도 잊어서는 안되겠다.

국민들이여! 이제 한가지 발명쯤은 시작할 단계가 아닌가?

서둘러 시작하라. 늦기전에.

기존 물건의 용도를 바꾸는 것도 발명이다

이것은 발명인으로서의 초보

적인,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한 항목의 하나이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기존물건의 용도(사용처)를 바꾸는 것이 무슨 발명이냐고 하겠지만 이것도 분명히 발명이다. 한 예를 든다.

일본의 매직 테이프의 메이커인 「벨크로社」는 수년전 1백만엔의 상금을 걸고 매직테이프의 새로운 용도에 관한 아이디어를 다섯 차례나 모집한 바 있다.

그 결과 수천 가지의 아이디어가 응모되었다.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은 「골프공에 붙여서 그것이 과녁에 맞으면 달라붙는 장난감」이었다. 실마 골프공에 붙이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상했다.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매월 15만엔의 고안료를 받고 있다.

또 매직 테이프를 시계의 밴드로 고안하여 일본 특허청에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사람은 벨크로社에 50만엔에 그 권리를 팔았으며, 신발제조업자인

A社は 매직 테이프를 운동화 끈에 붙여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이제 매직 테이프의 용도는 모두 나왔다고 생각 되겠지만 아직도 많이 있다. 이는 헬크로프트에 요즘도 새로운 용도의 아이디어가 계속 응모되어 채택되고 있는 사실이 입증하고 있다.

주위를 살펴보면 용도를 바꿔 새로운 발명을 탄생시킬 물건은 수없이 많다. 당장 주위를 살펴보자. 발명의 소재가 그대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 각종 발명품 전시장을 찾아가 보라. 또 시장에 나가 보라. 유명회사의 발명품(상품) 중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인의 꿈을 키워라

발명은 직업보다는 취미로 하는 것이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다시말해 발명에 미쳐 직장까지 버리지는 말라는 것이다.

취미생활로 발명을 하여 성공한 경우도 수없이 많다.

「힐튼」은 예술가이면서도 증기선을 발명하였고, 농축 오렌지 쥬스를 발명한 사람은 대학교수인 「스탈」이었다. 또 「호이트니」는 교사였는데 먼 방직기를 발명했고, 철제의 안전하고 튼튼한 찬장을 발명한 사람은 교회목사인 「디크」였다.

이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있다.

자동차의 전조등을 발명한 사람은 「처장은 알고있다」 등 수많은 영화를 감독한 유모씨였고, 고모씨는 비즈니스맨이면서도 세계 최초로 인초인형을 발명했다. 또 김모씨는 건축사이면서 아이디어트를 발명했고, 육군장교였던 최모씨는 아크릴 무늬 전사방법을 발명했다.

이밖에도 기자이자 정치학박사인 안모씨는 스피드 군화를 발명했고, 최모씨는 회사원이면서 지폐 계산기를 발명했다.

이처럼 발명이 직업도 아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세계적인 발명을 한 사람은 필자가 취재와 자료수집을 통해 발굴한 사람만도 국내의 포함 2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사실 아이디어 개발 즉, 발명이란 알고보면 「콜롬부스의 달걀」같은 것이다. 아이디어 개발이나 발명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겁을 먹거나 아예 생각조차 싫어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발명인의 꿈을 키워라. 그러면 남녀노소 누구나 발명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발명이다

철포가 발명되기 전까지만해도 가장 무서운 무기인 활도 따지고 보면 「나무+끈」에 지

나지 않는 발명이었다.

전 세계인이 보고 싶어하는 이집트의 스팅크스도 「사람의 얼굴+사자의 몸」에 지나지 않으며, 에어콘도 「냉장고+선풍기」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운 발명은 불편한 것을 개량하는 데서 나오기도 하지만, 두가지 이상 물건의 기능을 합하여 보다 편리한 기능을 갖는 하나의 물건을 생각해 내는데서도 나온다.

보온 겸용 전기밥솥, 냉동 겸용 냉장고 등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한국판 에디슨으로 불리우는 한국발명학회 신석균회장의 3백여 발명품을 보아도 대부분이 여기서 비롯되었다.

신회장은 미국의 뉴욕·스위스의 제네바·시독의 뉴른베르그 등에서 열린 국제발명전에 서만도 20여 차례나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87 뉴욕국제발명전에 출품하여 준 대상을 수상한 「머리핀 라디오」도 「머리핀+라디오」였다.

따지고 보면 머리핀 라디오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었던 발명이다. 그러나 한발 늦어 신회장에게 놓쳤다. 신회장이 특허청에 실용신안으로 등록을 마쳐 앞으로 10년간 신회장의 허락없이 어느 누구도 이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제품을 생산하려면 신회장에게 로열티(특허사용료)를 지급해야만 가능하다. <계속>